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0. 4. 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,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'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(한국경제, 4.7일자 보도)

- ◇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행보를 이어왔으며, 국민적 관심사안인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
- ◇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10개월 이상의 준비를 거쳐 새롭게 수립 하였으며, 이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- ◇ 4.7일 한국경제 <“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,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코로나19 본격 확산(2.18) 이후, 산업부의 업계 소통행보는 자동차부품 간담회가 유일,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음
- ② 마스크와 같은 정치권·청와대 관심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움직임
* 3.16일에도 마스크 업체를 방문하려 했으나, 업체의 반대에 방문을 취소함
- ③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급조하였으며, 과거 정책과 차이가 없음
- ④ 중요 과장 보직*은 잦은 인사발령을 내며 잘 나가는 과에 한 번씩 몸 담는 것을 중요시함
*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, 기계로봇장비과장
- ⑤ 산업부가 산업정책 부문의 역할을 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산업부는 2.18일 이후에도 7회의 현장 소통행보를 하였음

-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
-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 외에도 수출 업계 간담회,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, 긴급 업종별 간담회 등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, 정부 대응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 전개
- 특히, 3.12일 간담회에는 대한석유협회 임원도 참석하였음

< 산업부 장관 현장 행보(2.18~) >

일시	주요 내용	장소
2.20(목)	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(수출 업계)	무역센터
2.26(수)	구미산단 업체 현장방문 및 전국 산업단지 긴급 점검회의	구미산단
3.6(금)	부직포 생산업체 현장방문	크린앤사이언스
3.12(목)	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 (주요 업종)	무역보험공사
3.16(월)	긴급 대책연구원장 간담회	세종청사
3.23(월)	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	자동차부품조합
4.1(수)	구미산단 현장 간담회	코오롱인더스트리

- 정유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업계, 전문가와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, 금주 대책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② 마스크는 정치권·청와대의 관심사안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안임

- 마스크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안으로서 모든 정부부처가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안임
- 산업부는 핵심 원재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 확대를 위해
 - ① 지난 2월 초부터 9개국 28종의 샘플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의 수입 물량을 확보하였고,
 - ② 다섯 차례의 출고조정 실시로 총 25.1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생산차질을 방지하였음

○ 또한, 3.16일 마스크 생산업체의 반대로 현장방문을 취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- 산업부는 이 날 코로나19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'긴급 국책연구원장 간담회' 개최를 위해 현장 방문 일정을 조정하였음

③ 소재부품장비 정책은 10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수립함

○ '18년 하반기부터 사전준비를 거쳐 '19년도 산업부 업무보고('18.12)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정책 수립 추진을 발표

- 이후, 각종 업무협의회·실무위원회 출범 및 전문가·업계와의 수습차례 회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('19.8.5) 하였음

○ 과거 정책들과 달리,

① 법을 전면 개정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규모 지원
(과거 '01~'19년까지 19년간 5.4조원 투입 → '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),

②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협력모델 제도화,

③ 소부장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, 환경 규제 등 완화,

④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

그간의 소재부품장비 정책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

④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, 기계로봇장비과장의 잦은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님

○ 일본 수출규제('19.7월) 이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, 기계로봇장비과장은 각각 1차례 교체되었으며, 과도하게 자주 교체되지 않았음

* (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) '18.11월부터 약 1년 4개월 근무한 과장이 '20.3월 직속 상급자(소재부품장비협력관, 국장급)로 승진함에 따른 후속 인사

* (기계로봇장비과장) '19.1월에 보임한 과장이 '19.8월에 퇴직함에 따른 후속 인사

5 이번 정부 들어서 산업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함

- 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('18.12),
 - ②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('19.6),
 - ③ 신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20여개 이상의 업종별·기능별 대책,
 - ④ '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' 실현 계획('20.2),
 - ⑤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('20.2)
 - ⑥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('20.2)을 발표하는 등
-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, 산업강국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
다각도의 대책을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립·추진함

< 그간 발표한 업종별·기능별 주요 대책 >

주력 산업	신 산업	무역·투자	산업 기반
▪ 조선('18.11, '19.4) ▪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('18.12) ▪ 자동차부품('18.12) ▪ 공기산업('19.3) ▪ 동대문패션('19.4) ▪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('19.6) ▪ 섬유패션('19.6) ▪ 소재부품장비('19.8) ▪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('20.2) ▪ 산업부 2020 업무계획 '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'('20.2)	▪ 수소로드맵('19.1) ▪ 로봇('19.3) ▪ 재생에너지('19.4) ▪ 시스템반도체('19.4) ▪ 바이오헬스('19.5) ▪ 미래차('19.10) ▪ 수소안전관리('19.12) ▪ 수소경제법제정('20.1)	▪ 수출시장구조('19.9) ▪ 디지털무역('19.10) ▪ 수출상황점검·대응('20.2) ▪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('20.2, 총리주재)	▪ 표준화선점('19.6) ▪ 기활법개정('19.8) ▪ 스마트산업('19.9) ▪ 디자인('19.9) ▪ 산업대개조('19.11) ▪ 지식재산('19.11) ▪ 국가AI('19.12) ▪ 인재양성('19.12) ▪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('20.1) ▪ 집단에너지 기본계획('20.2) ▪ 중견기업 기본계획('20.2)

※ 문의: 김성열 산업정책과장(044-203-4210) / 김인곤 사무관 (044-203-4214)